

## “이희호 여사 옆자리가 명당”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15일 오후 광주시장 후보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묘역에 들어서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날 방명록에 '5·18 민주회복'이라는 짧은 글귀를 남겼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새정치 실종’ 새정치 공천

광주 구청장·전남 시장 군수 후보 27명 중 안철수계 겨우 2명 ‘도로 민주당’

### Ⓢ 선택 6·4 지방선거 D-19

5대5 통합정신 사라지고  
경선 통한 ‘후보 물갈이’ 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15일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전남 13곳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2차 경선,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광주·전남지역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날 발표된 명단은 재심을 거쳐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광주·전남지역 공천에서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이 경선으로 교체된 경우가 하나도 없고 27명 기초단체장 후보 중 안철수계 인사는 단 두명 뿐이어서 ‘도로 민주당’이란 지적이 나오는 등 공천 결과를 놓고 ‘새정치’를 거론하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합산방식

민주당계  
25명



안철수계  
2명

으로 이뤄진 이번 경선에서 목포시장후보 경선에서는 이상열 후보, 여수시장 경선에서는 주철현 후보, 순천시시장 경선에서는 허석 후보가 승리했다. <관련기사 3면>

나주시시장 경선에서는 강인규 후보, 광양시장 경선에는 김재무 후보, 구례군수 경선은 서기동 후보, 보성군수 경선은 정종해 후보가 승리해 본선거에 진출했다.

완도군수 경선은 신우철 후보, 해남군수 경선은 박철환 후보, 진도군수 경선은 이동진 후보, 영암군수 경선은 전동평 후보, 무안군수 경선은 김철주 후보, 신안군수 경선은 박우량 후보가 경쟁 후보를 제치고 당 후보가 됐다.

이미 후보로 최종 확정된 곡성 류근기 후보, 장성 김양수 후보, 강진 강진원 후보 외에 함평 안병호 후보, 담양 최형식 후보,

장흥 이명흠 후보, 영광 정기호 후보, 고흥 박병중 후보, 화순 구충곤 후보 등 6명도 단추추천돼 최종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27개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됐으나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혼란과 결과에서 나타난 비개혁신이 향후 본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돼 무소속 후보들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시장 후보 전락공천으로 나타난 민심이반과 맞물릴 경우 무소속 후보들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새정치연합 소속이면서 3선 제한에 걸리지 않은 22명의 현역 기초단체장 중 공천 배제나 불출마한 경우는 5명으로 공천 물갈이 비율은 22.7%에 불과했다.

그리고 현역 단체장이 경선에 나선 경우는 광주 4곳, 전남 6곳 등 모두 10곳이었으나 모두 단체장이 승리, 경선을 통한 물갈이는 헛구호에 그쳤다.

애초 경선 방식 선정이 미뤄지면서 시간에 쫓겨 여론조사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인지도가 높은 현역 단체장이 자연스럽게 경선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계의 일방독주와 안철수계의 때 쓰기가 도를 넘어서면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27명의 후보 중 안철수계로 분류된 인사는 여수 주철현, 영암 전동평 후보 등 단 두명 뿐이어서 ‘도로 민주당’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새정치를 모토로 신당이 창당됐고 혁신공천을 외쳤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게 된 것이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세력이 우세한 민주계가 혁신공천 노력을 보이지 않아 ‘5대5 통합 정신’은 사라졌다”며 “원칙도, 개혁정신도 없고 ‘제 밥그릇 챙기기’만 난무한 최악의 공천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내가 먼저” 후보등록 첫날부터 복적

6·4 지방선거의 광주·전남 후보자 등록이 오는 16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했다.

후보자 등록 첫날인 15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 등 유력 후보들은 이날 오전 관할 선관위를 찾아 등록했다.

광주시장 선거에는 이정재 새누리당 후보와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윤민호 통합진보당 후보, 이병훈 노동당 후보, 강운태·이용섭·이병완 무소속 후보 등이 이날 등록을 마쳤다.

광주의 경우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22명(비례 3명 포함), 기초의원 68명(비례 9명 포함)을, 전남의 경우 기초단체장 22명, 광역의원 58명(비례 6명 포함), 기초의원 243명(비례 32명 포함)을 각각 선출한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고, 홈페이지

(www.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채납 사항, 과거 선거 출마 경력 등을 공개했다.

광주시장 선거는 전라공천 논란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대 무소속 단일후보(강운태 또는 이용섭) 양강구도가 주목된다.

전남지사 선거는 지역 정세상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낙연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된다.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예비후보와 조선훈 총장 출신인 양형일 예비후보 간 양강 구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각 후보의 지지도를 감안하면 이번이 없는 한 장만재 후보의 재선이 유력시된다.

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朴대통령이 책임져야”

스승의 날…전국 1만5천여명 ‘세월호 참사 교사 선언’

교육부 “퇴진 요구 43명 징계”

박근혜 정부와 교단의 정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놓고 교사 1만5000여명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중 43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또 17일에는 서울 독립문공원에서 전국교사대회가 열려 총출동이 우려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본부에서 광주·전남지역 교사 3000여명 등 1만5852명이 참여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책무 불이행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뼈를 깎는 책임 규명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대통령

령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아이들이 죽음의 공포와 싸울 때 대통령은 공직자에게 문책 위협을 한 것 말고 무엇을 했느냐”며 “행식적 사고와 연철된 위로가 국민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교사선언은 지난 9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전국에서 총 1만5852명의 교사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실명을 함께 공개했고, 일반 교사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사선언에 앞서 전교조 소속 교사 43명은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탐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20명 사망 284명  
 ※ 세월호 참사 30일째  
 15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6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vie** **주영무건설**  
www.ymapt.co.kr

## 광주·전남혁신도시 영무예다음

중앙호수공원 첫 자리에서 누리는 리치마크 프리미엄

학교도 바로 앞!  
마트도 바로 앞!  
혁신의 모든 프리미엄을 거느린 최중심에 서다!

# RICH MARK

**금일 오픈**

주택전시관 오픈 3일간 선착순 사은품 증정 (소진시까지)

광주·전남혁신도시 B-12블록 75㎡/84㎡A,B 총 614세대 중소형대단지 **문의문의**

062) **368-3900**

vie 시행 | 주영무건설 | 주영무토건 | 주택전시관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83-2